

‘주거복지 버팀목’ 주택도시기금 2년새 35조원 급감

청약예금 줄고 국민주택채권 발행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에 ‘휘청’ 들어오는 돈 없는데...신생아특례·전세사기 피해지원 등 씬씀이 커져 기금 여유자금 2년여간 49조→13.9조원...주거복지 재원 고갈 위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의 불과 2년 새 35조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조성 재원인 청약저축이 쪼그라들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감소한 여파다. 이런 상황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공공주택 공급 등 돈 쓸 곳은 많아지면서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경기 침체에 주택기금 ‘휘청’=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이다.

집값 상승기였던 2021년 말 기준 조성액이 116조9141억원이었는데, 2년 새 21조원 줄었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주요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쓰인다.

두둑했던 기금이 쪼그라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이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다.

지난해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4만명으로, 1년 새 85만5000명 줄었다. 2021년 말과 비교하면 133만명 급감한 수치다.

청약저축 납입액은 지난해 말 14조9607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조5000억원 줄었다.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국민주택채권 발행액도 지난해 말 13조3717억원으로, 1년 새 1조원이 감소했다.

청약통장 납입액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을 합친

규모는 2021년 41조9000억원에 달했으나 2022년 32조7000억원, 지난해 28조4000억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연간 청약저축 납입액에서 해지액을 뺀 청약 순조성액(-2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채권 순조성액(-1조8000억원)은 지난해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많았다는 뜻이다.

◇들어오는 돈 없는데 ‘단골’ 구원투수로=이런 상황에서 주택도시기금을 써야 할 곳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올해부터 출산 2년 내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 지원되는 신생아 특례대출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온다.

PF 대출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주택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구제할 때도 기금을 쓴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건설 자금 역시 기금에서 지원한다.

노후 저축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할 때 주차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에도 기금이 나간다. 편의시설은 국비로, 주택은 기금에

서 빌려 짓도록 하는 방식이다.

들어오는 돈이 없는데 씬씀이는 커진 것이다.

국토부의 주택도시기금 지출액(기금 사용 예산)은 올해 37조2000억원으로 작년(33조3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기금 지출액은 2018년 26조7000억원 수준이었으나 6년 새 10조원 넘게 증가했다.

◇3월 말 여유자금 13조원으로 급감=이러다 보니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감소세가 뚜렷하다.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원에 달했으나 올해 3월 말 잔액이 13조9000억원이다.

불과 2년 3개월 새 35조1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금융상품에 투자해 굴리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2년 28조7000억원, 지난해 말 18조원 등으로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구상’이라는 변수까지 생겼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에게 전세금 일부를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

거나 피해 주택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이는 데 기금 3~4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중 경매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을 뺀 비용을 최종 투입액으로 볼 수 있다.

기금 여유자금 급감에 국토부는 비상이 걸렸다. 기금은 결과적으로 청약저축 예금자,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기 때문이다.

청약저축 금리를 높이거나 혜택을 강화하면 자금을 유입시킬 수는 있겠지만, 이와 동시에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금리가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기금 조성액과 여유자금이 줄면 임대주택 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청약저축 납입자 등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못 돌려주는 사태가 오면 안 되기에 여유자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어린이날 프로모션 ‘골드키즈 페어’ 선보여

구매고객 사은품·멀티백 등 증정

광주신세계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골드키즈 페어’를 선보인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골드키즈’란 저출산 시대에 외동 자녀를 뜻하며, 골드키즈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광주신세계도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프리미엄 아동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먼저 지난해 본관 6층 아동관에 호남 최초로 문을 연 ‘스토케(STOKKE)’ 매장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은 ‘스토케 익스플로리 엑스’로 부모와 아이가 가까운 거리에서 교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제품으로, 아동자의 키에 따라 15단계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다.

스토케는 페어를 맞아 ‘스토케 익스플로리 엑스’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체인징백과 겹층더 등 43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소진시까지 증정한다.

해외브랜드인 ‘봉통(BONTON)’도 인기가 높다. 올해 봄·여름시즌 새롭게 선보인 유아용 ‘리버티 드레스’(29만8000원)의 경우 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봉통은 매장에서 30만원 이상 구매고객들을 대상으로 봉통 멀티백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더불어 광주신세계는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



광주신세계 유아용품 브랜드 ‘스토케’ 매장 입구에 전시된 ‘익스플로리 엑스’ 유모차. <광주신세계 제공>

아 오는 5일까지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골드키즈 페어’도 개최한다.

이번 골드키즈 페어에는 슈슈앤씨, 미노도우, 갱키즈, 헤지스키즈 등 8개 아동 브랜드가 참여한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매년 합계출생

률이 낮아지는 등 저출산 시대에 한자녀 가족이 늘어나면서 내 아이에게는 프리미엄 제품을 선물하고 싶어하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며 “광주신세계는 스토케와 버버리 칠드런, 봉통 등 특별한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중기진흥공단 호남연수원 담양대나무축제 성공 기원 11~12일 시설 무료개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호남연수원은 ‘제23회 담양 대나무 축제’ 성공기원과 안전·ESG인식 확산을 위해 오는 5월 11~12일 대국민 시설 무료개방을 추진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호남연수원은 중소벤처기업 입직원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객실(2인실)과 스마트공장배움터 VR 체험, 조식을 무료로 제공한다.

특히 이번 이벤트는 담양 대나무축제 기간에 맞춰 운영돼,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돌아온 2024, 오랜만입니다’라는 이름의 시설 무료개방 이벤트는 오는 3일까지 구급품을 활용해 100명을 모집한다.

조수정 호남연수원 원장은 “이번 시설 무료개방을 통해 호남연수원이 중소벤처기업 입직원 휴양소 역할을 하며 지역축제 참여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남연수원의 무료개방에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작성은 중소벤처기업연수원 홈페이지에 공지한 포스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호남연수원(062-250-3024)으로 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뽀로로테마파크에 ‘비스포크 AI 콤보’ 체험공간 지난날 30일 뽀로로테마파크 율리도점에서 삼성전자 모델이 뽀로로 캐릭터와 함께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체험공간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뽀로로테마파크의 물놀이 시설인 ‘아쿠아 플레이 존’에 비스포크 AI 콤보를 설치해 방문객들이 위생적인 세탁·건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쿠아 플레이 존은 아쿠아 아트랙션에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 고객의 웃이 잦지 않도록 별도의 의상을 대여해준다. <삼성전자 제공>

“소비자 부담 고려”...LPG 국내 공급가격 6개월 연속 동결

국내 액화석유가스(LPG) 업계가 LPG 공급 가격을 6개월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가스는 5월 프로판 가격을 kg당 1239.81원, 부탄 가격을 1506.68원으로 정했다. 이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이다. E1도 5월 가정·상업용 프로판 가격을 전달과 같은 kg당 1238.25원, 산업용을 kg당 1244.85원으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부탄도 kg당 1505.68원으로 동결했다.

E1 관계자는 “누적된 가격 미반영분 등으로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했으나,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5월 국내 LPG 공급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남뉴스

광주 북구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지원 협약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스마트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해 AI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30일 광주 북구는 남도향도음식박물관에서 ‘소상공인 지능형 스마트 상점 지원 투자 협약식’을 열고 AI서빙 로봇 업계 1위 기업 VD컴퍼니와 투자 협력체계를 마련했다.

VD컴퍼니는 2019년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서빙 로봇과 테이블을 오더, 매출 관리 등을 일원화한 스마트 상점 기술을 개발해 소상공인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VD컴퍼니는 VD 컴퍼니 광주

지사와 로봇 기술 R&D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다. 또 향후 AI 로봇 생산공장에 북구에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VD컴퍼니에서 생산되는 서빙로봇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북구 소상공인에 한해 선착순 20대 판매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투자 협력 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작동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생업 현장이 편리해지길 바란다”며 “소상공인 살아가 민생경제도 살아나는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di@kwangju.co.kr



광양상의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광양상공회의소는 지난 30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간담회는 지역 기업인들의 현장 고충을 청취하고,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홍보하는 등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바쁘신 세정활동에도 끼여이 초청에 응해주신 양동구 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지역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국세청정에 적극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확대해 세정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며 “기업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광양세무서 신설 ▲중견기업 기업승계 세무컨설팅 제공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재해손실비용 산정방식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해양에너지 임직원 소통 시간...경영현황 설명

해양에너지는 지난달 25일 본사 대강당에서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2분기 경영현황설명회를 시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1분기 경영실적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임직원들과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돌발퀴즈 등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 결과 및 차량사고 감축활동 자료를 공유했고, 지난 5년간 회사 차량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드라이빙 클래스 운영, 개인운 운전습관 분석 및 피드백 등 교육의 효과를 확인했다.

또 광주시가 실시하는 ‘광주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맞춰 회사의 성장 노력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해양에너지는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 가족분노 활용 바이오가스 발전사업, CNG 충전소 DR사업 등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지속

할 계획이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이사는 “이번 설명회에서 새롭게 실시한 모듈별 토의 및 돌발퀴즈를 통해 딱딱한 분위기보다는 재미있고 신선하게 직원들에게 다가 공유했 수 있었다”며 “해양에너지 구성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아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92.06 (+4.62)
↓ 코스닥	868.93 (-0.79)
↓ 금리(국고채 3년)	3.529 (-0.023)
↑ 환율(USD)	1382.00 (+5.00)